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사공이 너희의 배를 건너편으로 데려가려고 왔다. 아버지에게 늘 진실되어라, 그러면 너희의 보트가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질문: 자녀들이 아버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며 머물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나?

대답: 너희가 육신의 형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몸 없는 영혼이고, 너희의 아버지 역시 무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육신의 형태인 탓에, 육신의 형태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영혼의식을 가져서, 너희 자신을 한 점이라 여기고,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오직 이것에만 노력이 든다.

움 산티. 시바 신이 말한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바가 아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마이며 시바 신이 그를 통해서 말한다. 너희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듯이, 그 어떤 인간, 신인이나 서틀 리전의 주민인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도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미묘하든 거칠든 형상을 가진 자는 누구도 신이라고 불릴 수 없다. 오직 무한한 아버지만 신이라고 불린다. 아무도 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저 "네티, 네티", 즉, 모른다는 말만 계속한다. 너희들 중에도 이것을 정확히 아는 자는 극소수다. 영혼은 "오 신이시여!"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의 점이다, 그러니 아버지 역시 점일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바바의 자녀들 중에는 (지식에 들어온 지) 30년에서 35년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들이 어떻게 영혼이며 하나의 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는 자들도 있고, 그들은 아버지를 기억한다. 무한한 아버지가 진품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아주 좋은 작은 상자에 보관한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을 때는 언제나 금이나 은 상자에 넣어서 보여줄 것이다. 오직 보석상인만이 다이아몬드를 알아볼 수 있다; 다른 이들은 식별할 수 없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보여줘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속는 자들이 많다. 진정한 아버지가 이제 왔지만, 세상에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 누구도 아무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배가 흔들리더라도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노래가 있다. 거짓의 보트는 너희가 그것을 흔들려고 아무리 애써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앉아 있는 이들조차도 보트를 흔들려고 애쓴다. 그들은 배신자라고 불린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사공인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안다. 그는 또한 정원의 주인이다. 아버지는 이것이 가시들의 정글이라고 이미 설명했다. 모두가 불순하다. 그들은 참으로 기만적이다! 참된 아버지를 아는 자가 거의 없다. 여기에 있는 자들조차 그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데, 그가 은밀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신을 기억하고, 그가 무체이며 지고의 나라에 거주한다는 것도 안다. 자신들 역시 무체의 영혼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육신의 형태 안에 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이를 잊어버렸다. 물질세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오직 육신만을 기억한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영혼의식이 되고 있다. 신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아주 쉽다. 지고의 아버지는 저 너머 초월의 세계에 머무는 지고의 영혼을 뜻한다. 너희들은 영혼이라고 불린다. 너희들을 지고라고 부를 수는 없다; 너희는 환생한다. 아무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심지어 신이 편재한다는 말까지 한다. 신봉자들은 산 위에서 신을 찾는다. 그들은 심지어 순례지와 강에도 간다. 그들은 강들이 정화자라 여기고, 거기에서 목욕함으로써 순수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신봉의 길에서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그저 해방 또는 영원한 해방(목샤, moksha)을 원한다는 말만 한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불행하다. 아무도 영원한 해방이나 황금시대의 해방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신을 소리쳐 부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신을 소리쳐 부른다. 신봉을 행해도 그 어느 누구의 슬픔도 제거되지 못한다. 비록 어떤 이가 하루 종일 앉아서 "라마, 라마"라고 되뇌다 해도, 그의 슬픔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라반의 왕국이다. 슬픔이 마치 그들 목을 조여 매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노래도 한다: 모두들 슬플 때는 신을 기억하고, 행복한 때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한때는 천국이 있었고, 지금은 슬픔이 있다는 뜻이다. 황금시대에는 행복이 있었고, 지금 철시대에는 슬픔이 있다. 그래서 이곳을 가시만 무성한 정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시 중의 으뜸이 육체의식이다. 그 다음이 정욕의 가시다. 아버지가 지금 설명한다: 너희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든 전부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침묵의 나라로 가야 한다. 너희들의 집과 왕국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집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데, 그 집이 곧 정화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정화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가 말한다: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 너희들은 오직 나만을 소리쳐 부른다: 바바, 와서 저희를 정화시켜 주소서. 그는 지식의 대양이다, 그러니 분명 그가 와서 입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그는

영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시브 자안티를 축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가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 있다고 말한다. 그 무엇도 이름과 형태를 초월할 수는 없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에, 돌과 자갈 등에도 들어 있다고 얘기한다. 참으로 의견들이 많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5악의 형태로 라반이 너희의 지각을 아주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신인들의 상에 절을 하는 것이다. 일부는 무신론자여서 어떤 이도 믿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오직 이 설명을 5천년 전에 들었던 브라민들만이 아버지에게 온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브라마를 통해서 창조를 수행하며, 너희가 브라마의 자녀들이라는 것 역시 쓰여 있다. 프라자피타 브라마는 아주 유명하다. 그러니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 너희들은 지금 슈드라 종교에서 나와 브라민 종교로 들어왔다. 사실, 스스로 힌두교도라고 칭하는 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때로는 이런 존재(신인)를, 때로는 다른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 존재들에게 간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누구에게 가는 일이 절대 없다.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인 신이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고 있다. 언젠가는 신이 “나를 기억함으로써 너희가 불순한 데서 순수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는 기사가 신문에도 실릴 것이다. 멸망이 가까워지면, 이 소리가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에 전해질 것이다. 신문에는 모든 곳의 소식이 다 실린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것을 실을 수 있다: 신이 말한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인 오직 나만이 정화자다.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순수해질 것이다. 이 낡은 세계의 멸망이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다. 누구든 멸망이 틀림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예행 연습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멸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지진 등도 일어나야 된다. 한편에는 폭탄이 터지고, 다른 쪽에서는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음식을 전혀 구하지 못할 것이다;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다. 단식투쟁을 하는 자들은 계속 물이나 꿀 등을 공급받는데, 체중이 줄어든다. 어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멸망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현인들과 성자들은 멸망이 일어나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계속 라마의 이름을 암송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조차 알지 못한다. 오직 신만이 그 자신을 안다; 다른 누구도 그를 알 수 없다. 그가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그가 이 낡은 몸에 들어와 세계 전체의 시작, 중간, 끝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너희는 평화의 나라에 가고 있다는 행복을 느껴야 마땅하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느냐? 그들은 평화의 공여자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지만, 오직 높은 중 가장 높은 아버지만이 신인들 중의 신인이다. 그가 말한다: 나는 너희 모두를 순수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돌아갈 것이다.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드라마에 따라서, 모두가 돌아가야 된다. 모든 영혼이 모기떼처럼 돌아간다는 말이 기억된다. 너희들은 황금시대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다는 것도 안다. 지금 이 철시대에는 인간들이 아주 많다.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줄어들 것이냐? 지금은 합류의 때다. 너희들은 황금시대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멸망이 일어나서 모든 영혼이 모기떼처럼 집에 돌아가리라는 것을 너희는 안다. 군중 전체가 집에 돌아갈 것이지만, 몇몇 소수는 황금시대로 갈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육신의 존재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말아라. 그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보지 말아라. 나는 영혼이고 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행복하게 낡은 육신을 떠나야 한다. 계속 평화의 나라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지막 생각이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한 아버지만을 기억하는 데 노력이 든다. 노력하지 않고는 높은 지위를 받을 수 없다. 아버지가 너희를 보통사람에서 나라안으로 바꾸려고 온다. 지금 이 낡은 세계에는 어떤 휴식이나 안락이 없다. 오직 평화의 나라와 행복의 나라에만 휴식과 안락이 있다. 여기의 가정에는 오직 평화롭지 못함과 매질뿐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이제 이 더러운 세계를 잊어라.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 천국을 세우려고 왔다. 너희들은 지옥에서 불순해졌다. 이제 너희는 천국에 가야 한다. 이제 아버지와 천국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지막 생각들이 너희를 목적지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결혼식 등에 가도 되지만, 오직 아버지만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지식이 지각 안에 간직되어야 한다.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들 등을 돌봐도 된다, 그러나 지각에는 바바만을 지녀라: 바바의 지시는 이것이다, 나를 기억해라. 너희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너희 자녀들 등을 돌보겠느냐? 신봉자들은 가정에 머문다; 그들은 집에서 살지만 신봉을 행하기 때문에 신봉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집안일을 돌보면서 또한 죄를 탐닉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구루는 그들에게 크리슈나 같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크리슈나를 기억하라고 얘기한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황금시대에 대해 듣고 있고, 지금 황금시

대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는 천국을 세우지 않는다. 그는 주인이 될 뿐이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는다. 기타의 신은 오직 합류시대에만 온다. 크리슈나는 신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는 단지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기타를 말했고, 자녀가 그것을 들었다. 그 다음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 대신 자녀의 이름을 적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기타가 거짓이 되었다. 거짓이 된 기타를 공부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자 요가를 가르친 다음 아버지는 떠났고, 크리슈나는 그것을 통해서 황금시대의 주인이 되었다. 신봉의 길에서 참된 나라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누가 천국의 주인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이조차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 유익도 받지 못한다. 현자들이나 성인들은 그들만의 만트라와 자신의 사진을 준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샷상에서는 이것이 아무개 스와미의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말한다. 누구의 이야기냐? 베단타(Vedanta)의 이야기, 기타(Gita)의 이야기, 바가바드(Bhagawad)의 이야기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너희를 가르치는 분이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는 어떤 경전 등도 공부하지 않았다. 시브 바바가 경전을 공부했느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인간들이다. 시브 바바가 말한다: 나는 기타 등을 공부하지 않았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수레는 모든 것을 공부했다. 나는 아무 것도 공부하지 않았다. 나는 세계의 시작, 중간, 끝에 대한 지식 전체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기타를 공부했었다. 그는 앵무새처럼 그것을 따라 하곤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에게 들어오자 그는 즉시 기타를 그만두었는데, 시브 바바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천국의 왕국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전부 끊어라. 그저 나 하나만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런 노력을 해야만 된다.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그가 사랑하는 이를 기억한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 역시 그만큼 확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팔로킥 아버지가 말한다: 자녀들아, 나를 기억하고, 너희의 천국의 유산을 기억해라. 소리를 내거나 악기 등을 연주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노래들은 아주 훌륭해서, 그 의미를 너희에게 설명해준다. 그런 노래를 작곡한 이들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 미라는 신봉자였던 반면, 너희는 지금 깨달음을 얻었다. 자녀들이 무언가를 아주 잘 하지 못하면, 바바는 그들이 신봉자들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한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자녀들아,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메신저가 되어라. 모든 이에게 바바와 유산을 기억하라는 말을 전해서, 여러 생 동안의 그들 죄가 타버릴 수 있게 해라. 지금은 집에 돌아갈 때다. 신은 오직 한 분 뿐이고, 그는 무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갖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만이 여기에 앉아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너희에게 “만마나바브”라는 만트라를 준다. 현자들, 성인들, 산야시들은 멸망이 곧 일어날 것이며, 너희가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만이 너희 브라민 자녀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준다. 너희들은 기억을 통해서 건강을, 공부를 통해서 부를 받는다. 너희들은 죽음에 대해 승리를 얻는다. 거기에서는 불시의 죽음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신인들은 죽음에 대해 승리를 얻었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너희는 아버지와 결별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메신저가 되어 모든 이에게 아버지와 유산을 기억하라는 말을 전해라.
2. 이 낡은 세계에는 휴식이나 안락이 없다; 이것은 더러운 세상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잊어라. 집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순수해지려면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축 복: 이중으로 봉사함으로써 알로키한 샷티(힘)를 비전으로 보여주는 세계 봉사자가 되어라.

아버지의 모습이 세계의 봉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역시 아버지처럼 세계의 봉사자들이다. 너희가 몸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마음으로는 세계 변화를 위한 봉사에 계속 참여해라. 동시에 몸과 마음을 통해서 봉사해라.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동시에 봉사하는 영혼들을 지켜보는 자들은 그 영혼들이 알로키한 샷티임을 경험하거나 또는 그들을 그러한 비전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훈련을 끊임없이, 그리고 자연스러워지게 해라. 마음을 통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특히 집중하는 훈련을 더 늘려라.

슬로건: 모든 이에게서 미덕들을 발견하고 아버지 브라마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 움 산티 OM SHANTI ***